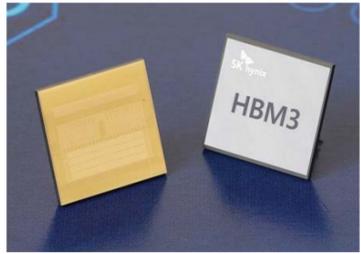


# D램 시장 '고성능·고용량' 수요 ↑ 삼성·SK, 점유율 확보 경쟁 치열

DDR5 가격 상승... 시장 회복세  
삼성, PIM 메모리 상용화 박차  
하이닉스, HBM 앞세워 점유율 ↑



삼성전자 12나노급 32Gb D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HBM3 D램 /SK하이닉스

D램 시장 세대교체가 본격화하고 있다. 얼어붙었던 시장도 천천히 회복하는 모습이다. 미래 반도체를 향한 경쟁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3일 디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8월 DDR5 16Gb D램 고정거래가격은 3.4달러로 전달(3.17달러)보다 7% 이상 올랐다.

DDR4 8Gb D램이 1.3달러로 전달(1.34달러)보다 추가 하락한 것과 반대다. 그동안 같은 시세 흐름을 보였던 DDR4와 DDR5 D램이 결국 '디커플링' 된 것. DDR5 D램은 DDR4 대비 성능이 훨씬 좋지만 가격도 비싸다는 이유로 보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나 최근 가격 차이가 크게 줄어들면서 수요가 다시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7월 말부터 가격 인상이 본격화됐다.

옴디아는 올해 DDR5 D램 비중이 전체 시장에서 12% 정도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DDR4(35%)에 비해서는 여전히 절반 이하다. 그러나 DDR5는 DDR4 대비 성능은 물론 용량과 가격까지도 높은 편이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DDR5는 서버 시장에서 인

기가 높다. 생성형 AI를 구축하려면 HBM이 필수적, 최신 HBM가 DDR5 메모리를 쌓아 올려 만든다. 스마트폰과 PC 시장이 여전히 위축된 가운데에도 전체 시장이 성장하는 이유다. 내년부터는 DDR5 D램이 범용 제품으로 '대세'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이 때문이다. D램 시장은 세대 교체가 될 때마다 시장 불황과 회복을 겪어왔다. 다운사이클로 가격이 크게 떨어지다가, 차세대 규격이 보급되면서 공급이 부족하게 되는 흐름이다. 공급사들이 다운사이클로 생산을 최소화한 사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이에 대응하지 못한 영향이다.

최근에도 반도체 업계는 감산 속에서도 DDR5 D램 공급 부족 가능성에 미리 대응하는데 주력해왔다. SK하이닉스가 4세대 10나노(1a) D램부터 DDR5 비중 확대에 주력하며, 삼성전자도 14나노에 이어 12나노급 D램을 먼저 양산하며 DDR5 공급량을 극대화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경쟁도 치열해지는 모습이다. SK하이닉스가 HBM을 앞세운 전략을 성공시키며 삼성전자가 주도하던 시장을 바꾸기 시작한 것.

옴디아에 따르면 2분기 D램 시장 점유율은 삼성전자가 38.2%, SK하이닉스가 31.9%였다. 삼성전자가 4.6% 포인트 떨어졌지만, SK하이닉스가 7.2% 포인트 상승하며 2위로 올라섰다.

SK하이닉스는 HBM 시장에 삼성전자에 유일한 경쟁업체로 자리잡은 데 이어, HBM3E를 한 발 먼저 개발하며 시장을 이끌고 있다. 발열 등 문제를 해결한 'MR-Muf' 공정으로도 주목을 받았다.

삼성전자도 재추격에 나섰다. HBM에 핵심 공정인 TSV를 쓰지 않고서도 128GB D램 모듈을 구현할 수 있는 32Gb DDR5 D램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12나노급 D램을 한결음 더 발전시킨 것. SK하이닉스가 독점하던 엔비디아에도 HBM3 공급 승인을 받으며 속도를 붙이고 있다. 메모리에 인공지능(AI)을 적용한 PIM 메모리 상용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 韓·美·日, 반도체·정유·철강 등 업황 악화

경총 3국 대표기업 실적 비교

글로벌 경기 불황 여파로 반도체, 정유·철강 등 업종별 대표 기업들의 올 상반기 매출 감소가 지난해보다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매출과 영업이익 감소 현상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일본 등에서도 모두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일 한국, 미국, 일본 3개국 대표기업(8개 업종)의

경영실적을 분석한 '한·미·일 업종별 대표기업 경영실적 비교' 보고서를 발표했다.

업종별 경영 실적을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올 상반기 주요 업종 중 반도체, 정유, 철강 업종 등은 경영실적이 악화된 반면, 자동차, 인터넷서비스 업종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실적을 보였다.

한국과 미국의 반도체 대표기업들은 작년보다 시작된 경영실적 악화가 올 상반기에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

다. 한·미 반도체 대표기업(4개사)의 올 상반기 평균 전년 대비 매출액 증가율은 -29.7%로 부진이 심화됐다.

정유·철강 업종은 올 상반기 매출액이 전년 대비 8.8%, 6.2% 감소하며 역 성장을 보였다. 기업별로는 SK이노베이션 4.7%, GS칼텍스, -17.3%, 포스코홀딩스 10.9%, 현대제철 5.8% 등의 매출 변화를 기록했다.

상반기 대표기업 평균 매출액 증가율은 일본(7.4%), 우리나라(4.3%), 미국(-5.5%) 등으로 집계됐고 평균 영업이익률은 미국(13.7%), 한국(9.8%), 일본(6.3%) 순으로 나타났다. /김재용 기자

## LG화학, BC 투어... R&D 인재 확보 나서

신학철 부회장 美 출장... 간담회 소통

LG화학 신학철 부회장이 '3대 신성장동력'을 이끌 R&D 인재 확보를 위해 미국을 찾았다. 3년 연속 'BC(Business & Campus)투어'를 위해 나선 것이다.

LG화학은 신학철 부회장이 지난달 31일 CTO(최고기술책임자)와 각 사업부 연구소장 등 주요 연구개발 경영진들과 함께 미국 뉴욕 매리어트 마르퀴스 호텔에서 열린 'BC(Business & Campus)투어'를 진행했다고 3일 밝

혔다.

'BC(Business & Campus) 투어'는 주요 경영진이 출장 일정과 연계해 현지 우수 인재들과 직접 소통하며 현장 인터뷰까지 실시하는 대표적 글로벌 인재 확보 활동이다.

이날 행사에는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MIT), 하버드대, 스탠포드대, 캘리포니아공대 등 북미 지역 주요 20여개 대학에서 석·박사 40여명이 초청됐다.

참석 인재들은 차세대 배터리 소재, 친환경·바이오 소재, 혁신 신약 개발, 탄소 절감 기술 등 LG화학의 3대 신성



신학철 LG화학 부회장(가운데)이 미국 뉴욕에서 열린 우수인재 채용행사 BC투어 참석 인재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LG화학

장동력을 가속화할 혁신 기술 전공자들로 이루어졌다.

신 부회장은 LG화학의 R&D 현황과 변화 방향 등을 공유하고, 간담회를 통해 참석인과 소통하며 궁극적으로 해결해줄 수도 했다. /허정윤 기자

## 항공업계 재도약



지난달 27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장에서 여행객들이 줄 서 있다. /뉴시스

# 최대 12일 황금연휴 특수 항공업계, 증편 '날갯짓'

추석 연휴기간 여행수요 상승 전망  
광 등 추가 운항... 수익 확보 기대감

정부가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항공업계가 '황금연휴 특수'에 대한 기대감으로 부풀고 있다. 항공사들은 임시증편을 통해 수익 끌어올리기에 나설 전망이다.

3일 항공업계는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항공편 예약률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주재한 비상경제민생 회의에서 "국내 관광을 활성화해 내수가 진작되도록 해야 한다"며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달 18일부터 30일까지 추석 연휴를 보내고 1일 일요일, 2일 임시공휴일, 3일 개천절로 이른바 '빨간날'이 이어진다. 이후 개인 연차 소진으로 4일~6일을 쉬게 되면 이어지는 주말과 한글날을 더하면 최대 12일까지 황금연휴 일정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연휴가 갑자기 길어지다 보니 시민들의 반응은 "좀 더 일찍 정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반응부터 "빨리 항공편을 알아봐야겠다"는 반응까지 다양했다.

이에 항공사들은 임시 증편을 통해 황금연휴 특수에 대응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추석 연휴 기간 주요 국내선·국제선 항공편을 추가 운항한다. 국내선은 부산~제주, 김포~제주, 김포~부산 등 총 26편의 임시편을 운항한다. 국제선은 하와이(2회), 자그레브(4회), 괌(2회), 발리(2회) 등 14개 노선(약 50회)에서 부정기편을 추가 운항할 계획이다.

아시아나항공은 27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국내외 하늘길에 임시 항공편을 투입한다. 국내선은 김포~제주 편도 8편, 김포~광주 편도 1편을, 국제선은 인천~훗카이도 아사히카와 편도 4편, 인천~타이베이 편도 8편, 인천~오사카 편도 4편을 추가 편성한다. 또한 10월 1일부터 인천~로마 노선은 주 6회 운항을 재개한다.

진에어도 추석 연휴 기간 주요 노선 84편을 추가로 편성했다. 인천~코타키나발루 10편, 인천~나트랑 10편, 인천~오사카 12편, 인천~타이베이 12편, 부산~다낭 4편 등이다.

에어서울은 9월 27일~10월 11일 인천~나트랑, 인천~나리타 노선을 각각 15편씩 추가 운항하고, 9월 27일~10월 10일 인천~다카마쓰노선도 7편 임시 증편한다. 진에어 역시 추석 연휴 기간에 주요 노선 84편을 추가로 편성했다. 인천~코타키나발루 10편, 인천~나트랑 10편, 인천~오사카 12편, 인천~타이베이 12편, 부산~다낭 4편 등이다.

티웨이항공은 국내선 58편, 국제선 60편 등 총 118편을 추가 편성했으며 전체 추가 공급 좌석은 2만2302석이다. 세부적으로 국내선은 김포~제주 4편, 김포~부산 32편, 청주~제주 22편을, 국제선의 경우 인천~다낭 13편, 인천~괌 13편, 인천~홍콩 7편, 인천~후쿠오카 5편, 인천~오사카 7편, 대구~오사카 13편, 청주~다낭 2편을 추가 투입한다.

티웨이항공 측은 "황금연휴 기간 동남아, 일본, 괌·사이판 등 국제선 항공편 예약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 거리두기 해제에 여권 발급 3배 '경충'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로 억눌렸던 해외여행 수요가 폭발하면서 올해 여권 발급량이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한 국조폐공사와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까지 조폐공사의 여권 발급량은 367만 권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3만

권의 3.5배로 급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03만 권)보다 3.5배로 급증한 규모다.

양 의원은 "조폐공사가 여권 생산을 위탁받은 2008년부터 지금까지 외교부와 협의한 최대 생산량은 600만 권으로 변화가 없었다"며 "앞으로 해외여행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여권 생산 능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허정윤 기자